



이재명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 트럼프, 북미 회담 불발에 “김정은과 진전 노력… 인내심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불발 관련, 인내심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지만,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이번엔 타이밍이 맞진 않았다”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상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막바지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서 “이번엔 타이밍 안 맞아”

“韓,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 해결 위해 할 일 찾겠다”

“시진핑과 회담 아주 중요…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을 것”

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도 많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길 바란다며 아시아 순방 내내 구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이날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며 이번 일정에서 만나지 않을 계획을 시사했다.

30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

며 “모두를 위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 중 하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과 경제 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뤄낸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에서 단기간 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산업에서도 협력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자동차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구축했고, 이 대통령과 나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관도 이렇게 특별한 환영식을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름이 있지만, 조만간 걷혀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뉴스시스

### 지면안내

- ▶트럼프, 경주 도착… APEC CEO서밋·한미정상회담 등 일정 3면
-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행렬… “유족·시민, 재발방지 다짐” 9면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달초 생산 재개

670여명 재가동 투입 합의… 하루 4천본 생산

“합평 신공장 연내 착공… 2028년 가동 목표”

최근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다음 달 초부터 생산을 재개한다.

29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임금협상 합의에 이어, 광주공장 재가동을 위한 인력 규모 협의를 마무리했다.

노사는 광주공장 1800여명 생산직 가운데 곡성공장 파견인원과 휴직자를 뺀 670여명을 재가동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이 매년 100명씩 등 1년에 200명이 퇴직하는 현실적 상황과 2028년 합평 신공장 가동 목표를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광주공장이 매각되고 합평 신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이번 합의 수준으로 인력이 운용될 것이다”면서 “생산 투입 인력 규모는 3년간 광주공장에서 300명이 퇴직하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공장은 생산 재개를 위해 필요한 일부 시설 및 설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이번 달 정식적인 재가동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광주공장은 현재 불이 나지 않은 1공장과 2공장 일부를 활용해 하루 1000분을 시험생산하고 있다.

이번 노사의 합의로 다음달초부터 당초 목표인 하루 4000분을 생산할

예정이다. 공장 증설에 맞춰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해 내년 2월에는 하루 1만본(연간 350만본)까지 생산한다는 목표다.

이와 별도로 합평에 추진 중인 신공장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합평 신공장은 건설 절차가 진행 중이며 1단계 건설 공사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2028년 1월 공사가 완료되면 정상 가동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6609억1700만원 규모의 합평공장 신설 투자안을 가결했다. 투자 금액은 토지 취득금액 1160억8400만 원을 포함한 건축 및 생산 설비 구매 비용이다. 투자 기간은 전년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또 지난 7월 1단계로 연 530만본 생산을 위한 공장을 2027년 말까지 합평빛그린산단에 건설해 2028년 1월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원자재 정련동에서는 지난 5월17일 화재가 발생, 부지(15만㎡) 중 3분의 2 가량이 타거나 그을리면서 조업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2공장 원자재 정련동 등의 화재작업은 11월까지 진행된다. /기동취재부

## 전남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 기한 놓치지 말고 사용하세요

전라남도가 도민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시군과 합동 캠페인 등을 펼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28일 현재 97%를 넘어섰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지급 수단별 비중은 신용·체크카드 42.8%,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10.1%,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30.5%, 선불카드 16.6%로 나타났다. 지류형 상품권은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민 수요가 높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염선호 기자

였다. 지급률이 높은 상위 6개 시군은 보성(98.3%), 담양(98.1%), 구례(98.1%), 장성(97.7%), 순천(97.7%), 강진(97.6%) 순이다.

전남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도민이 소비쿠폰 혜택을 누리도록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급하는 등 마지막까지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11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도민이 쿠폰을 적극 사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